

MEN'S GILLETTE, STORY

BLADEFREGA



MEN'S GILLETTE, STORY

THE FAMILY · 07

악마 소년.

“Enzo,” 어머니가 아버지께 말씀하셨다. “이 애를 기숙학교에 보내야겠어요.

이제 Nando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통제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보다 더 나쁜 건,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

“오늘 애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아니. 말해 봐.”

“가게에 나랑 같이 있었는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긴 가위가 없어졌어요.

천을 자를 때 쓰는 거요.

30미터짜리 천 두루마리를 자르는 그 가위요.

나는 여분의 가위를 써야 했어요.

거의 한 시간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애가 돌아오는 게 보였어요.

차분하게.

웃으면서.

손에 가위를 들고요.”

아버지가 고개를 드셨다.

“어디 갔었는데?”

“카페예요.”

“뭘 하러?”

“우리 아들은 다섯 살이에요, Enzo.

당신은 애 아버지잖아요.

바보처럼 웃지만 말고 책임 좀 져 봐요.

나는 걱정돼요.

애가 커서 뭐가 되겠어요?”

어머니는 겁에 질려 계셨다.

그러나 내가 돌아왔을 때,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Orfeo 카페의 주인 Rocco Pizzimenti가 나와 함께 돌아왔다.

그는 너무 웃어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다.

Rocco의 말로는, 그는 종종 나를 오쟁이 진 놈이라고 부르며 즐거워했다.

그날 오후 나는 그 문제를 끝장내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이 애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Rocco가 말했다.

“그 가위를 들고 카페에 왔어요.

내 목을 따려고요.

나는 거리를 두고 계속 놀러 댔죠.

가게 안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그런데 이 애가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이 애를 끌어내야 했어요.”

아버지가 웃으셨다.

Rocco가 웃었다.

손님들이 웃었다.

나는 웃지 않았다.

결국 Rocco는 나를 오쟁이 진 놈이라고 부르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때 그는 내가 자기가 예상한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는 훨씬 더 일찍 그 결론에 이르러 계셨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나를 곧장 기숙학교로 데려가셨다.

성 빈첸시오 수녀회.

어머니는 입학금과 1년 치 학비를 한 번에 치르셨다.

보험이었다.

내가 48시간 안에 돌아오는 것에 대비한.

어머니는 또한 앞으로 나를 어떻게 대할지를 두고 수녀원장과 사적인 합의를 보셨다.

아버지는 영업 사원이셨다.

수녀원장은 나폴리 사람이었다.

돌이켜 보면, 영업 사원 아버지와 나폴리 출신 수녀원장의 조합이 그 뒤에 일어난 거의 모든 일을 설명해 준다.

아버지는 또한 크게 눈에 띄지 않게, 수녀원에 Gillette 판촉물이 꾸준히 공급되도록 손을 쓰셨다.

특히 비닐봉지였다.

500상자.

그 시절 그것은 금값이었다.

구하기 어려웠다.

비쌌다.

없어서는 안 되었다.

수녀들은 그것을 아주 좋아했다.

물량이 떨어져 갈 때마다 전화가 올랐다.

Forcella 출신의 Maria Franca 수녀원장이었다.

“Frega 씨, 인사차 한번 들러 주시면 어떨까요?”

그때 나는 중요한 구분 하나를 배웠다.

영적인 인사가 있었다.

그리고 사교적인 인사가 있었다.

어느 날 영업 이사 Raffaele Di Tullio가 아버지를 찾아 집으로 전화를 했다.

그에게는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셨다.

“Frega 씨, 좋은 아침입니다. 잘 지내시죠?”

“잘 지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건 안부 전화가 아니군요.

말씀하십시오.”

“본사에서 다들 궁금해하고 있어요.

영업 사원 한 사람이 어떻게 이탈리아 전역에 배포된 판촉물의 30 퍼센트를 써 버렸는지 알고 싶어서요.

순전한 호기심입니다.

그 이상은 아니에요.

당신에게 비닐봉지를 거의 32팩릿나 보냈어요.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네요.

Gillette 사업 말고요.

비닐봉지 사업 말입니다.

그걸 팔고 있습니까?

이익을 내고 있나요?

아니면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버지는 망설이지 않으셨다.

“저는 바티칸을 돕고 있습니다.

그쪽은 자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없지요.

제 아들이 자라고 있는 레조칼라브리아의 성 빈첸시오 수녀회가
자선 활동에 작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저는 이 일을 알리지 않았습시다.

이런 일은 조용히 하시길 좋아하신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광고는 없습니다.

Gillette의 방식이지요.”

침묵.

긴 침묵.

마침내:

"좋습니다, Frega 씨.

판촉물을 더 보내겠습니다."

8년 동안 수녀들은 비닐봉지를 단 한 장도 사지 않았다.

답을 얻지 못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다.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사업으로 바꿨다면 어땠을까?

그들은 수녀였다.

그러나 여자이기도 했다.

아무도 조사하지 않았다.

기숙학교의 첫 몇 달 동안, 수녀들이 몹시 불온하다고 여긴 사건이 적어도 세 번 일어났다.

내게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였다.

첫 번째는 숨바꼭질을 하다가 일어났다.

놀 때마다 나는 어김없이 수녀들의 개인 방 안으로 들어가 있었다.

나는 궁금했다.

베일을 벗은 수녀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었다.

나의 가장 큰 발견은 머리를 거의 두피까지 밀어 버린 수녀 한 명이었다.

그 뒤로, 모든 수색은 같은 경고로 시작되었다.

"구석구석 다 찾아봐요.

그 악마는 어디에든 숨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들의 악몽이 되어 있었다.

그 감정은 피차 마찬가지로였다.

두 번째 사건은 아침 미사 때 일어났다.

매일 10시 30분, 아이들은 성당을 나서며 줄을 섰다.

수녀 한 명이 묵주를 내밀고 간단한 질문을 했다.

“땅 위에서 가장 힘센 존재는 누구지요?”

모두가 정해진 대답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고는 묵주에 입을 맞추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그 의식을 조금 고쳤다.

묵주 대신 수녀의 수도복에 입을 맞춘 것이다.

그러고는 말했다: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여자가 하느님보다 더 힘이 세대요.”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부모님은 점심 전에 불러 오셨다.

학교는 악마를 내쫓고 싶어 했다.

충분히 넉넉한 수표 한 장이 죄를 염려로 바꾸어 놓았다.

염려는 놀라울 만큼 빨리 사라졌다.

수표에는 0이 여섯 개 있었다.

옛 이탈리아 리라는 설득력이 대단했다.

세월은 순수함의 보호 아래 낭만적으로 흘러갔다.

케이크 축제는 그저 공짜로 먹을 기회였다.

연극은 진실을 말할 기회였다.

왕자 역을 맡을 때마다 나는 관객에게, 공주는 못생기고 입 냄새가
고약하니 입을 맞추면 안 된다고 알렸다.

선생님들은 생각이 달랐다.

마침내 5학년이 왔다.

그다음은 졸업 시험이었다.

심사위원 한 명이 속으로만 할 생각을 그만 공공장소에 흘려 버렸
다.

“드디어.

저 애를 떼어 내는구나.”

모든 것이 정리된 것처럼 보였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나는 30년을 기다렸다.

그리고 돌아갔다.

나는 Gillette 면도날을 주문했다.

선불로.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다.

61년이 흘렀다.

오늘날까지도 질문은 남아 있다.

얼마 전 딸이 나를 보며 말했다:

“미안, Nando.

난 아빠라고 안 불러.

근데 도대체 정체가 뭐야?”

아.

아하하하하.

Ferdinando Frega

Gillette Man ✂️